과천청사불자협 창립 "전법 최전선에 설 것"

12월 3일 과천 보광사 극락보전서
선재 스님 등 40여 사부대중 모여
초대 회장 권근상 공불련 사무총장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정부과천청사 불자연합회가 12월 3일 과천 보광사 극락보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정부과천청사 불자연합회 모두가 위없는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추진하는 정책은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3개 기관, 5000여 공무원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불자들이 모였다. 정부과천청사 불자연합회(회장 권근상, 이하 과천청사 불자회)는 12월 3일 과천 보광사 극락보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전법과 수행에 진력할 것을 발원했다.

과천청사 불자회는 권근상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 회장은 2024년 3월 정부과천청사 관리소장직에 부임한 후 정부과천청사에 불자회가 없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직접 청사 건물 10개 동에 불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함께 할 인연을 수소문했다.

올해 4월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계기로 과천경찰서 불자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과천경찰서 불자회장의 소개로 청사 근처의 보광사를 알게 되어 과천청사 불자회가 의지할 도량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결실로 20여 명의 불자가 모여 이날 창립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보광사 주지 선재 스님, 보광사 총무 여산 스님, 권근상 과천청사 불자회장, 전충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총괄고문, 김동현 대통령실 불교담당 행정관, 송남출 공불련 간사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반야심경 △경과보고 △권근상 회장 인사말 △선재 스님 설법 △발원문 봉독 △사홍서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권근상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자들이 용기를 내어 서로 의지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고 보현행원을 실천하고자 뜻을 모았다"며 "우리 과천청사 불자회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초발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수행 정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진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발원했다.

과천청사 불자회 지도법사인 보광사 주지 선재 스님은 법상에 올라 불자회 회원의 행복이 곧 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전법이 되고 포교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불자연합회가 될 것"이라며 "보광사는 과천청사 불자회의 고향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다.

법회가 마무리되고 과천청사 불자회 회원들은 불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동대부여중·고 교명 '동대부가람중·고'로 바뀐다

12월 3일 동국대 이사회서 승인
남녀공학 전환…경영 정관 반영
교내 사업 추진 현황 보고회도


동국대는 12월 3일 이사회를 열어 동대부여중 · 고의 명칭 변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국대 산하의 동대부여중과 동대부여고가 2025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이 '동대부가람중' '동대부가람고'로 변경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12월 3일 서울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57회 이사회'를 열고 동대부여중·고의 명칭 변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사회는 이사 13명 중 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동대부여중·고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학부모와 학생, 졸업동문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 1년여 간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사회 교육위원장 경우 스님은 "변경되는 명칭인 '가람'은 순우리말로 '강(江)'을 뜻한다"며 "학생들이 공부하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청정한 도량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제정했다"고 새로운 명칭의 뜻을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로터스관 신축사업 추진 변경(안) △의과대 정원 증원에 따른 추진(안) △청탁금지법 교육 △사학기관 행동강령 교육 △2024회계연도 법인 중간감사 결과 등 교내 사업에 관한 보고도 진행됐다.

회의의 마무리에서 동국대 이사이자 전 부총장 종호 스님은 "불교 동아리 확대에 따른 지도법사 스님들의 증원이 이뤄져 이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교법사, 지도법사 스님들의 업무 환경 개선이 곧 불교 전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종호 스님은 법인 발전기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여러 임원진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동국대가 3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 10위 내에 드는 쾌거를 이뤄 감사를 전한다"면서 "올해 영캠프를 통해 동국대와 산하 학교의 6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계를 받아 불자로 거듭났다. 이를 시작으로 불자 양성에 더욱 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청소년이 생각하는 화쟁이란 "감자전분?"

조계종 화쟁위·교법사단 공동
'하이, 화쟁 영상이미지 공모' 시상
의정부광동고 이수 학생 대상 수상



"제가 생각한 화쟁은 '기다림'입니다. 귀한 보물은 찾기 힘들다는 말처럼, 상대에 대한 존중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털어놓은 개인적인 경험이 행복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빛나는 경험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문 스님)가 개최한 '하이, 화쟁 영상&이미지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의정부광동고 이수 학생이 소감에서 화쟁의 의미를 밝혔다. 이수 학생의 장편영상 '화쟁은 기다림이다'는 가족 간 '섭섭했던' 순간과 이를 풀어가는 기다림 속에 느낀 깨달음을 직접 그린 그림 표현, 영상화한 작품이다.

화쟁위원회는 12월 4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하이, 화쟁 영상&이미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전국교법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화쟁은 00다'를 주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화쟁의 의미를 1분 이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인 화쟁위원장상의 이수 학생을 비롯해 미래본부 사무총장상에 광동고 서아율 '화쟁은 감자전분이다'(장편 영상), 광동고 박수민 '화쟁은 실이다'(만화)가 선정됐다.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상은 광동고 김진서 '화쟁은 소금이다'(릴스), 의정부광동고 신하진 '화쟁은 자석이다'(만화), 의정부광동고 양서지 '화쟁은 팔레트다'(장편영상)가 받았다. 교법사단장상은 광동고 한자민 '화쟁은 거미줄이다'(만화), 동대부여중 김채연 '화쟁은 요리의 맛조화다'(만화), 의정부광동고 이영채 '화쟁은 감정통제다'(만화)가 차지했다. 이밖에도 해동고 박성준 '화쟁은 슬리퍼다'(장편영상)을 비롯한 10편이 입선에 선정됐다. 단체상은 동대부여중과 광동고에게 돌아갔다.

공모전을 마련한 정문 스님은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화쟁 정신을 잘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민추본, '금강산 유점사' 가치 조명 연구포럼

11월 29일, 역사관 대회의실서
"남북교류 활성화, 복원 가능성↑"



금강산의 대표사찰로 1760년대에 846칸의 사찰이었다는 기록이 남은 대찰, 금강산 유점사의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포럼이 개최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는 1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금강산 유점사 복원의 학제적 접근과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제1차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을 열었다.〈사진〉

연구포럼에서는 유점사가 가진 학제적 가치를 조명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유점사 사적기부터 한국전쟁기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분석하며 유점사가 가진 불교적 가치를 조명했다. 이 학예사는 "여러 기록에 따르면 유점사는 금강산 최초 사찰이자 금강산 신앙의 본거지로 고려후기부터 조선말기까지 왕실의 지원이 끊이지 않은 사찰"이라며 "한국전쟁 시기 남북 격전지였던 유점사는 남북화해와 위령의 성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점사의 지리적 가치(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대우교수) △유점사의 문화적 가치(유근자 국립순천대 교수) △유점사 복원 가능성(박상준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관)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오늘 1차 포럼이 유점사가 가진 불교사적, 지정학적, 문화사적 가치를 헤아려 금강산 유점사 복원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불교문화유산의 교류 연구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가령 기자

돈관 스님, 석림동문회장 재임

12월 2일 동국대 상록원서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시상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동문회 제19대 회장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재임했다.

석림동문회(18대 회장 돈관 스님)는 12월 2일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과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 및 장학금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만장일치로 19대 석림동문회장직에 재추대됐다.

돈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경책으로 동국대가 대학 평가 10위 안에 들고, '영캠프'를 통해 4000여 대학생·청년이 불제자가 됐다"며 "제19대 회장으로서 동국대의 발전과 더 많은 학생들이 부처님을 따르는 전법·포교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과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에는 수원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11기), 마하붓다사 주지 진오 스님(18기),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25기), 뉴저지 원적사 주지 성향 스님(34기)이 수상했다. 장학금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백상원 학감 일윤 스님(50기), 혜광원 학감 동진 스님(57기), 백상원 회장 원묘 스님(58기), 와이즈캠퍼스 석림회 학감 청감 스님(49기), 사라림 학감 동원 스님(47기), 석림회장 평인 스님(60기)이 받았다. 김민재 기자

중앙신도회, 성지순례로 화합 도모

11월 24일~12월 2일 7박 9일
현지 어린이 위한 물품 후원도



중앙신도회가 부다가야, 사르나트 등 부처님의 자취가 남아 있는 성지를 참배하고 제28대 집행부 임원들 간 화합과 유대를 강화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박 9일간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를 회향했다.〈사진〉 순례단은 정원주 회장을 비롯해 제28대 집행부 임원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다가야, 사르나트, 라지기르,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바라나시 등 인도·네팔의 성지를 순례해 신심을 다지고 임원 간 화합을 도모했다.

정원주 회장은 "성지순례에 협조해 주신 현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순례가 앞으로 중앙신도회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례단은 부다가야에 위치한 조계종 직할교구 사찰 분황사와 기원정사 근방의 천축선원을 방문,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아동의류를 후원했다. 김민재 기자

명원 스님,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추대

11월 23~24일, 임시총회서



영동 반야사 주지 명원 스님〈사진〉이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신임 연맹장으로 추대됐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 스님)은 11월 23~24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원에서 임시총회와 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하고 신임 연맹장으로 영동 반야사 주지 명원 스님을 추대했다.

명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불교스카우트 활동에 진력하겠다"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카우트 활동은 불교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청소년 전법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불교스카우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불교연맹은 2025년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도 한국불교를 알릴 계획이다. 김민재 기자

아름다운동행, 예비 초등생 '책가방' 선물

2025년 지원대상자 모집 시작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가방 보내기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책가방 보내기' 기금 모연과 지원 대상 어린이를 모집한다.

'책가방 보내기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예비 초등생에게 새로운 책가방과 입학 준비물품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책가방은 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어린이들은 2025년 상반기 새학기 시작 전 책가방과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책가방 보내기' 후원과 더불어 아름다운동행의 '교육지원사업' 정기후원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에서 가능하다.

02-737-9555 김가령 기자